

# 일기를 통해 본 귀농·귀촌인 ‘일상 경관’ 인식 - 텍스트 마이닝 적용 -

오정심 상명대학교 K-Culture 창의콘텐츠 연구소 연구교수

ruaths0802@naver.com

## 국문초록

본 논문은 세계적인 변화 흐름 속에서 ‘일상 경관’의 중요성이 부각된 배경을 탐구하고, 귀농·귀촌인 관점에서 일상 경관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했다. 전라남도 ‘곡성군’ 사례를 중심으로, 귀농·귀촌인이 작성한 ‘일기’ 460건을 수집하여 ‘텍스트 마이닝’의 주요 기법인 ‘빈도수 분석’, ‘토픽 모델링’, ‘감성 분석’ 등으로 분석했다. 명사형 형태소의 분석 결과를 인지적 측면에서, 형용사형 형태소의 분석 결과를 감성적 측면에서 해석했다. 특히 기존 감성 분석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맨틱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해 단어 네트워크 목록을 추출했고, 목록에서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와 공기 관계로 연결된 ‘명사’를 검토하여 감성의 대상과 내용을 확인했다. 이러한 방법은 기존 연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차별화된 접근법이다.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흥미로운 사실은 해당 귀농·귀촌인이 ‘동네 산책길 꽃’, ‘텃밭 수확’, ‘동네 행사’, ‘카페 공간’ 등을 중요하게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들 모두는 시각적 요소를 갖춘 일상 경관이다. 현재 많은 농촌 마을은 주거 경관을 개선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지붕 색상을 하나로 통일하거나 담벼락에 벽화를 그리고 있다. 그러나 시각적 임팩트는 그러한 인위적인 조치로 생겨나지 않는다. 현재의 정책 및 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일기와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하여 귀농·귀촌인 관점에서 일상 경관을 연구한 첫 사례로서의 의미가 있다. 본 논문을 통해 일상 경관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일상 경관, 귀농·귀촌, 일기, 텍스트 마이닝, 시맨틱 네트워크 분석

투고일자 2024. 6. 26. | 심사일자 2024. 7. 18. | 게재확정일자 2024. 8. 7.



## I. 서론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보다 지방 소멸 문제를 먼저 겪은 일본에서 유일하게 30년째 인구가 증가하는 마을이 있다. '히가시카와(Higashikawa)는 상수도·국도·철도가 없는 시골 마을이지만, 1993년부터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 중요한 비결 중 하나는 마을 경관이다. 1985년 히가시카와는 '사진 마을'을 선언하고, 어디서나 사진이 예쁘게 나오는 마을이 되도록 경관을 조성했다. 현재 히가시카와는 일본에서 사진이 가장 예쁘게 나오는 마을로 유명하다(전영수 외 2022: 316~323). 최근에는 마을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히가시카와 스타일 주택 설계지침', '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이곳에 집을 지으려면 지붕 모양, 외벽 색깔, 정원 스타일 등을 규정에 맞춰야 한다(北海道写真の町東川町 2006: 5~7; 다마무라 마사토시·고지라 도시아키 2020: 24~25, 102). 그런데 규정이 까다로워서 사실상 이주자 선발이나 다름없다는 이야기까지 돌았다. 그럼에도 전체 인구의 '54%'는 이주자일 정도로 이 지역의 인기는 매우 높다(정영호 2022.11.20).

히가시카와 사례는 주민이 거주하는 환경이나 일상 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동네 모습을 가꾸면 지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을 알려준다. 전문가들은 주거 환경이나 일상생활에서 흔히 보는 동네 모습을 '일상 경관'이라고 명명했다(Evelyne Vouligny et al. 2009: 890). 그동안 우리는 '경관'이라 하면 그림처럼 아름다운 경치를 떠올렸다. 하지만 히가시카와는 기존과 다르게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동네 모습까지 경관으로 인식해 관리했다.

서구에서는 일찍부터 일상 경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의 지리학자인 마이니그(Donald W. Meinig)는 경관 분야의 고전 「일상 경관의 해석(The Interpretation of Ordinary Landscape)」(1979)에서 그동안 경관 연구가 탁월성, 심미성 따위를 지닌 '대표 경관'에 치우쳤다고 지적하고, 보통 사람의 생활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일상

경관'의 연구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럽은 제도적 차원에서 일상 경관을 보호·관리하기 위해 2000년에 '유럽경관협약(European Landscape Convention)'을 채택했다(이광운 2010: 175; 노시훈 2020: 151).

전문가들은 앞으로 일상 경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블라이니(Evelyne Vouligny)는 최근에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쾌적한 주거 환경에 대한 욕구가 커졌고, 은퇴자를 중심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경치가 좋은 곳을 선호하면서, 일상 경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Evelyne Vouligny et al. 2000: 898~899; 이차희 2020: 14).

우리나라에서도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쾌적한 주거 환경에 대한 욕구가 커졌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60% 이상이 향후 귀농·귀촌을 고려할 정도로 농촌 이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특히 이들이 경치가 좋은 곳을 선호하면서 농촌 주거지에 대한 수요도 증가했다(곽정수 2024.07.13).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일상 경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일상 경관에 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관련 연구도 미흡한 상황이다. 현재 관련 정책과 제도는 주로 도시 경관 정비와 명승지 보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오정심 2023: 163). 이러한 배경 가운데 본 논문은 세계적인 흐름과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귀농·귀촌인 관점에서 '일상 경관'을 연구하고자 한다. 나아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일상 경관의 계획과 농촌 지역 활성화 정책에 필요한 기초를 제시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1) '일상 경관' 이해

'일상 경관(Everyday Landscape)'이란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통 경관을 뜻한다. 원래부터 있던 말은 아니다. 사회 문화의 발달에 따라 경관의 의미가 바뀌면서 생긴 말이다. 일상 경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관' 의미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살펴볼 필요

가 있다. 그런데 우리말 ‘경관’은 1970년대 현대 조경학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영어 ‘landscape’를 번역하면서 생겨난 말이다(황기원 2011: 30). 그래서 영어 landscape를 중심으로 경관 의미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살펴봤다.

영어 landscape의 사전적 의미는 풍경, 풍경화이다. 이러한 의미는 16세기~17세기에 형성되었다. 이전까지 다른 의미로 쓰였다. landscape의 옛말 landscape는 사회·경제적으로 구획된 토지의 일부를 뜻한다. 이를 통해 과거에는 landscape가 생활환경과 관련한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6~17세기에 유럽에서 네덜란드와 이탈리아의 풍경화와 픽처레스크(picturesque) 운동이 유행하면서 landscape의 표기는 landscape로, 의미는 풍경화처럼 아름다운 경치로 바뀌게 되었다(황기원 1989: 55; 박근현·배정한 2013: 118). 영어 landscape 의미가 이렇게 풍경, 풍경화로 바뀌게 되면서 이 말은 시각적 감상과 관련한 맥락에서 주로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1980년 후반~1990년에 신문화지리학자들이 등장하면서 바뀌게 되었다. 이들은 경관 개념의 범주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던컨(James Stuart Duncan)은 경관이란 정치·사회·경제적 권력의 재현이며, 경관 이면에 숨겨진 의미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던컨의 주장은 경관의 형태와 심미성을 주로 연구하는 기존 흐름에 반하는 것이었다. 영국의 신문화지리학자들은 경관 연구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부분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잭슨(J. B. Jackson)은 뛰어난 가치가 없더라도 일상에서 흔히 보는 모든 것이 경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이를 가리켜 토속 경관(Vernacular Landscape)이라 명명했다(송원섭 2015: 309; 박근현·배정한 2013: 121; 이차희 2017: 18~21).

이러한 흐름 가운데 유럽연합은 2000년에 ‘유럽경관협약(Convention européenne du paysage)’을 채택하여 일상 경관을 제도적으로 보호·관리하는 길을 처음 열었다. 협약 제1조에 ‘경관’이란 사람들이 인식하

는 지역이며, 그 특성은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 결과에 기인한다. 그 유형에는 ‘뛰어난 경관(Outstanding Landscape)’, ‘일상 경관(Everyday Landscape)’, ‘퇴화된 경관(Degraded Landscape)’이 있다고 명시했다(Council of Europe 2000: 3).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과 다르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경관을 ‘풍경화 같이 아름다운 경치’라는 의미로 한정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경관 관리는 주로 명승지, 문화유산 주변, 관광지에 집중돼 있다. 이에 따라 일상 경관의 관리가 소홀히 이뤄지고 있다. 들뜬 아파트, 산 중턱 전원주택처럼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이 무분별하게 세워지거나, 마을 한복판에 오랫동안 빈집이 방치되고 유해 공장이 난립하는 현상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 2) 관련 선행연구 검토

본 논문에서는 ‘일상 경관’ 개념을 선행연구와 유럽경관협약의 내용을 참고하여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사람들이 인식하는 지역(환경)’으로 정의했다. ‘일상 경관’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기 위해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kr)에서 관련 논문을 검색했다. 검색 결과로 20편이 나왔지만, ‘일상 경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논문은 이차희(2017), 서준원(2023), 서준원·조경진(2021) 연구 3편뿐이었다.

선행연구 중에서 주목할 만한 논문으로 이차희 연구(2017)가 있다. 이 논문은 농촌 주민을 원주민과 귀농·귀촌인으로 구분하고 일상 경관에 관한 인식 차이를 분석하여, 본 논문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 논문에서 흥미로운 내용은 귀농·귀촌인이 원주민보다 시각적 요소가 있는 일상 경관, 예를 들어 마을 어귀 느티나무, 돌담 등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또한 귀농·귀촌인은 경관을 인식할 때 외부인(전문가·관광객)과 내부인(거주민)의 관점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훼손된 경관에 대해 강한 개선 의지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일상 경관 관리

에서 귀농·귀촌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인터뷰, 사례 연구와 같은 정성적 연구 방법을 주로 이용했다. 그런데 이 방법은 표본 선정 논란, 연구자 주관 개입과 같은 한계를 안고 있다. 그래서 최근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하고 있다.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이란 간단히 말해, 사람이 쓴 자연어 텍스트를 컴퓨터 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 분석하고 유용한 정보,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방법이다(오정심 2024b: 120).

현재 경관 연구 분야에서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선행 연구로 김건태·서주환 연구(2018) 등 12편<sup>1</sup>이 있다. 선행연구 대부분은 소셜 미디어에서 관련 텍스트를 수집하고 빈도수 분석 등 텍스트 마이닝의 주요 기법을 이용해 경관 인식을 분석했다. 이처럼 경관 인식에 관해 연구할 때 텍스트와 텍스트 마이닝이 선호되는 이유는 텍스트에 사람들의 인식과 감정의 내용이 풍부하게 담겨 있기 때문이다. 어떤 대상을 경험한 후에 그것을 텍스트에 기록하는 행위는 그 대상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각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그래서 텍스트에는 어떤 대상에 관한 경험과 감정의 내용이 풍부하게 담겨 있다. 이러한 이유로 경관 인식 관련 연구에서 텍스트와 텍스트 마이닝이 자주 활용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관련 텍스트를 수집해 텍스트 마이닝으로 귀농·귀촌인이 인식한 일상 경관의 특징 등을 분석할 것이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일기'를 수집해 분석할 것이다. 일기는 일상생활에서 겪은 일이나 생각과 느낌을 하루 단위로 기록한 글로, 사람들이 평소에 경험한 일상 경관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 3. 연구 대상 및 방법

#### 1) 연구 대상

본 논문의 목적은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기록한 일기를 수집하고 텍스트 마이닝으로 그들이 인식한 일상 경관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나아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일상 경관의 계획과 농촌 지역 활성화 정책에 필요한 기초를 제시하며, 일상 경관 연구 방법으로써 일기와 텍스트 마이닝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 아래 연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초 조사를 하였다. 국내에서 가파른 인구 감소로 소멸 위험에 처한 농촌 지역 가운데 귀농·귀촌 일기를 구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아봤다. 2023년 지방소멸위험지수<sup>2</sup>를 기준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소멸 위험이 가장 큰 곳은 '전라남도(0.36)'이다. 전라남도 22개 시군구 중에서 소멸 위험이 가장 큰 곳으로 고흥군(0.1), 신안군(0.11) 등 11곳이다. 이 중에서 인터넷에서 귀농·귀촌 일기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지역으로 '곡성군'이 있다<sup>3</sup>.

전라남도 곡성군은 인구 2만 6천 여명의 농촌 지역이다. 쌀, 보리, 밀과 같은 주곡 작물을 주로 재배하며, 돌실낱이 삼베와 사과와 산지로 유명하다. 관광 명소는 압록유원지, 관음사가 있다(곡성군청). 곡성군은 '경관법'에 따라 2017년에 「2030 곡성 경관 계획」을 수립했다. 데이터 분석에 앞서 곡성군의 경관 계획을 검토했으며,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곡성군은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체 지역을 특성에 따라 경관 권역, 경관 축으로 구분하고 권역마다 '경관 거점'을 선정했다. 경관 거점은 랜드마크나 시각적으로 뛰어난 장소, 국가유산 주변 등

1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kr)에서 관련 논문을 검색한 결과, '역사문화 탐방로 조성사업 경관 특성 분석(김건태·서주환 2018)', '텍스트 마이닝을 통한 웨일즈 밀레니엄 센터 건축의 대중적 인식에 관한 연구(양지윤·김지연, 2017)' 등 12편이 나타났다.

2 '지방소멸위험지수'는 20세~39세 여성 수를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눈 상대 비율로, 가임기 여성 수가 감소할수록 비율이 낮아진다. 단계는 낮음(1.5 이상), 보통(1.0~1.5), 소멸주의(0.5~1.0), 위험진입(0.2~0.5 미만), 고위험(0.2 미만) 등 5단계로 나누며, 수치가 낮을수록 소멸 위험이 크다고 해석한다. 2023년 기준 전라남도 22개 시군구 가운데 고위험 단계에 진입한 지역은 고흥(0.1), 신안(0.11), 곡성(0.18) 등 11곳이다(김용희 2023.10.27).

3 곡성군에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농촌 일기 자료가 풍부하다. 마을 주민 일기장 발간 사업을 추진해 마을 일기 자료가 많다(나요안 2022.12.9). 곡성군의 농촌 생활상을 담은 '소설가 김탁환의 섬진강 일기', '이희열의 농촌 일기' 등이 출간되었다.

을 말한다. 곡성군이 선정한 경관 거점은 동악산, 압록 유원지, 태안사, 도림사, 옥과향교, 섬진강 기차마을, 침실 습지 등 주로 관광지나 문화유산 주변이다. 이를 통해 곡성군은 경관 개념을 아름답고 유명한 경치로 인식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경관 관리에 관한 만족도 조사에서 관광객의 45%는 만족한다고 응답했지만, 주민은 27.9%만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곡성군의 경관 관리가 명승지와 관광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서 관광객의 만족도는 높았지만, 주민의 만족도는 낮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일상 경관 관련 계획도 찾아볼 수 있었지만, 통상적인 내용이라서 실현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 예를 들어 신축하는 주택과 상업건축물에 한정해 지붕 색상 통일, 건물 배치 등 일반적인 기준만 제시하고 있다.

2) 연구 방법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정제’, ‘데이터 분석’, ‘종합 및 해석’ 4 단계로 진행한다. <표 1>은 본 논문에서 진행한 연구 단계와 방법을 요약한 것이다.

첫 번째,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구글 포털에서 ‘곡성 귀농(귀촌) 일기’를 검색했다. 검색된 자료에서 농촌 유학 일기를 제외하고 블로그에 공유된 귀농·귀촌 일기 148건, 농림축산식품부 귀농·귀촌 포털에 공유된 주민 일기 312건, 총 460건을 연구 대상으로 수집했다.

두 번째, 수집한 텍스트를 컴퓨터로 분석하기 위해 데이터를 정제했다. 사람이 쓴 텍스트는 컴퓨터로 바로 분석할 수 없다. 컴퓨터 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변환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가리켜 ‘데이터 정제’라 부른다. 본 논문에서는 자연어 처리 기술인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mecab-ko)를 통해 데이터를 정제하였고 총 98,994개 형태소를 추출했다. 정제 작업을 통해 추출한 형태소 집합을 코퍼스(corpus)라 부른다.

세 번째, 정제한 데이터를 텍스트 마이닝의 종류

인 ‘빈도수 분석’, ‘중심성 분석’, ‘토픽 모델링’, ‘시맨틱 네트워크 분석’, ‘감성 분석’을 이용해 분석했다. 분석에 사용한 프로그램은 넷마이너(NetMiner4.5.0)이다.

네 번째, 데이터 분석 결과를 해석할 때 ‘경관의 구성 요소’와 관련한 연구를 참고했다. 문화지리학자 잭슨(J. B. Jackson)은 일상에서 흔히 보는 모든 것이 경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일상 경험을 기록한 일기의 내용 모두가 경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일기에는 관용적 표현, 경관 묘사와 상관없는 단어, 예를 들어 맛, 가격, 방문 등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어를 제외하고 분석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경관 구성 요소’와 관련한 연구를 참고하여 데이터 분석 결과를 검토했다.

또한 데이터 분석 결과를 해석할 때 품사별 특성을 참고했다. ‘명사’는 사물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며 어떤 개념이나 지식을 나타낼 때 주로 쓰인다. 그래서 명사형 형태소 분석 결과를 인지적 측면에서 해석했다. ‘형용사’는 사물 상태나 화자 감정 따위를 나타내는 말이다. 그래서 형용사형 형태소 분석 결과를 감성적 측면에서 해석했다.

표 1 연구 단계 및 방법

단계	연구 방법
1단계 데이터 수집	- 곡성군 귀농·귀촌 일기 460건 수집(원자료) ※웹 데이터 자동화 프로그램 이용
2단계 데이터 정제	- 데이터 적재→비정형 원자료를 정형화 형태소 집합으로 변환→불용어 등 제거 등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mecab-ko) 이용
▼ 총 98,994개 형태소 추출(코퍼스 구축)	
3단계 데이터 분석	명사 형태소 (인지적 측면) - 빈도수: 단어 출현 빈도 분석 - 동시 출현 도수: 일정 범위에서 함께 출현한 단어 빈도 분석 - 중심성: 텍스트 구성에 중요한 핵심어 도출 - 토픽 모델링: 문서 내용을 주요 토픽으로 분류
	형용사 형태소 (감성적 측면) - 감성 분석: 긍정·부정으로 감성 경향 분석, 주요 형용사별 감성 대상 도출 ① 시맨틱 네트워크 분석으로 단어 네트워크 형성 ② 단어 네트워크 목록 출력, 주요 내용 시각화 ③ 주요 형용사와 연결된 명사 내용 검토 ※넷마이너(NetMiner) 이용
4단계 종합 및 해석	- 핵심어, 주요 주제를 통해 경관 구성 요소 도출 - 주요 형용사와 연결된 명사 검토→경관 경험에서 느끼는 감성, 감성의 대상 도출

본 논문에서는 기존 감성 분석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맨틱 네트워크 분석'<sup>4</sup>을 활용했다. 기존의 감성 분석 방법은 단어들을 긍정·중립·부정으로 분류한 후에 총비율로 감성 경향을 판별한다(김수현 외 2020: 36). 이러한 방법은 텍스트 전반에 나타난 감성 경향을 알고 싶을 때 유용하지만, 구체적인 감성 내용을 알고 싶을 때 제한이 따른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시맨틱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형용사'와 공기 관계로 연결된 '명사' 목록을 추출해 감성의 내용과 대상을 파악했다. 예를 들어 단어 네트워크 목록에서 '아름답다'와 연결된 명사를 확인하면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느낀 대상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선행연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차별화된 접근법이다.

## II. 분석 결과

### 1. 인지적 측면

사람들이 어떤 대상을 중요하게 인식하여 기록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명사형 형태소'를 대상으로 '단어 빈도수 분석', '동시 출현 빈도수', '연결 중심성', 3가지 지표로 분석했다.

'단어 빈도수'는 텍스트에서 단어가 얼마나 자주 나왔는지 계산한 값이다. 빈도수가 높게 나온 단어는 텍스트의 주제나 특성을 대표한다고 해석한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쓰인 단어의 빈도수도 높을 수가 있어서, 중요도를 알아보는 '동시 출현 빈도수', '연결 중심성' 등도 함께 분석해야 한다. '동시 출현 빈도수'는 일정한

범위에서 단어들이 얼마나 함께 자주 나왔는지 분석한 값이다. 동시 출현 빈도수가 높게 나오면 저자들이 공통으로 자주 쓴 단어로 해석한다. '연결 중심성'은 단어 네트워크에서 특정 노드가 이웃 노드와 얼마나 많이 연결되었는지 계산한 값이다. 연결 중심성이 높게 나온 단어는 텍스트의 구성에 중요한 키워드로 해석하며, 이 단어를 제거하면 텍스트의 구성이 어렵게 된다(오정심 2022: 55). 본 논문에서는 위 3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분석값이 모두 크게 나온 단어를 중요 키워드로 도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당 귀농·귀촌인이 중요하게 인식한 일상 경관을 파악했다.

〈표 2〉는 '명사형 형태소' 8,129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순위를 매기고 상위 1%, 즉 80위권에 있는 단어만 추려서 정리한 것이다. 주요 일상 경관을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경관 구성 요소'와 관련한 단어에 '빗금'으로 표시했다. 그리고 빗금이 표시된 단어 중에서 3가지 지표의 값이 모두 크게 나온 단어를 찾아봤다.

검토 결과, '경관 구성 요소'와 관련한 단어 중에서 3가지 지표의 값이 모두 가장 크게 단어로 '꽃'이 나타났다. 그리고 상위 10위권에는 '텃밭', '행사', '카페'가 나타났다<sup>6</sup>. 모두 시각적 요소가 있는 일상 경관이다. 시각적 요소는 생김새나 모양, 패턴, 색깔 따위가 달라서 두드러지거나 시선을 사로잡는 부분이 있는 것을 말한다. 귀농·귀촌 일기를 분석했기 때문에 농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볼거리, 이를테면 논, 밭, 비닐하우스가 상위권 목록에 나타날 것이라 예상했지만, 분석 결과는 이와 달랐다.

4 '시맨틱 네트워크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이란 텍스트에 쓰인 단어를 노드와 링크로 연결하고 중심성 등 주요 지표로 분석하여 핵심어, 주요 의미 등을 도출하는 방법이다(오정심 2023: 167).

5 '경관 구성 요소'는 선행연구의 연구 결과를 참고했다. 김상범·이상영(2006), 김상범 외 3인(2012)은 농촌의 경관을 크게 '생산 공간', '생활 공간', '자연환경'으로 나누고 공간별 구성 요소를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 생산 공간: 논, 밭, 비닐하우스, 과수원, 축사, 농로 등
- 생활 공간: 주택, 창고, 담장, 마을회관, 도로, 마당, 체험시설, 축제, 유적지, 관광시설 등
- 자연환경: 산, 하천, 바다, 호수, 공원, 숲, 계절적 요소(설경, 단풍) 등

6 '수확', '맛'의 경우 3가지 지표 값이 모두 크게 나왔지만, 경관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리고 '가을', '옥수수', '멜론', '배추'는 단어 빈도수는 높게 나왔지만, 연결 중심성 값은 낮게 나타나 중요 키워드로 볼 수 없다.

귀농·귀촌인이 시각적 요소가 있는 일상 경관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분석 결과는 선행연구인 이차희 논문(2017)에서도 나타났다. 이 연구는 사례 분석을 통해 귀농·귀촌인이 원주민보다 산수유나무, 느티나무, 돌담과 같이 시각적 요소가 있는 일상 경관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가 귀농·귀촌인이 외부인(전문가, 관광객)과 내부인(거주민)의 관점을 모두 갖고 경관을 인식하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 2 빈도수 및 중심성 분석 결과

순위	단어	빈도수	동시 출현	빈도수	연결	중심성
1	수확	267	맛	119	맛	0.088491
2	맛	224	수확	89	수확	0.073906
3	꽃	191	꽃	76	꽃	0.064469
4	텃밭	137	친구	70	행사	0.054664
5	동네	121	아침	68	카페	0.052212
6	가을	121	동네	68	동네	0.048535
7	친구	120	가을	68	느낌	0.047310
8	옥수수	113	봄	66	친구	0.046574
9	멜론	112	텃밭	65	방문	0.046452
10	배추	111	여름	63	신청	0.042775
11	농장	109	구경	63	농지	0.042407
12	사과	106	엄마	62	저녁	0.042407
13	행사	103	느낌	59	가을	0.042285
14	고추	102	저녁	57	텃밭	0.041794
15	하우스	100	점심	56	여름	0.041182
16	카페	99	기분	54	고추	0.040691
17	엄마	97	행사	51	봄	0.039711
18	봄	96	산책	51	하우스	0.039098
19	산	90	산	51	농장	0.038117
20	아침	89	밥	50	구경	0.037872
21	구경	89	비	49	점심	0.037872
22	축제	88	최고	44	가격	0.037627
23	여름	85	거리	43	구입	0.037259
24	산책	82	카페	41	비	0.037014
25	비	82	선물	41	밥	0.036402
26	점심	79	공간	41	기차마을	0.036034
27	저녁	78	가격	41	산	0.035666
28	느낌	78	사이	40	아침	0.035421
29	밥	73	기억	40	옥수수	0.035298
30	할머니	71	하늘	39	축제	0.035298
31	딸기	68	방문	39	기분	0.035176
32	아저씨	67	감사	39	기간	0.034318
33	섬진강	67	아저씨	37	농기계	0.034318
34	풀	66	바람	37	섬진강	0.034195
35	논	66	날씨	37	농가	0.033828
36	감	65	겨울	37	밥	0.033460
37	고향	64	할머니	36	석곡	0.033337
38	감사	64	소리	36	정보	0.033092

순위	단어	빈도수	동시 출현	빈도수	연결	중심성
39	흙	63	재미	35	엄마	0.032602
40	김치	62	흙	34	현장	0.032112
41	감자	62	풀	34	초보	0.031989
42	잎	61	재료	34	겨울	0.031867
43	벼	61	잎	34	기계	0.031499
44	기차마을	61	식당	34	흙	0.031499
45	기분	60	농장	34	각종	0.031376
46	기계	59	향	33	프로그램	0.031131
47	공간	59	식사	33	사과	0.030764
48	석곡	58	색	33	쌀	0.030641
49	커피	57	기계	33	주말	0.030518
50	블루베리	57	고추	33	농협	0.030396
51	방문	57	커피	32	시기	0.030396
52	밤	57	초보	32	거리	0.030273
53	농지	57	종류	32	커피	0.029906
54	농가	57	논	32	멜론	0.029783
55	식당	56	계절	32	친환경	0.029538
56	모종	56	입구	31	소	0.029415
57	겨울	56	예전	31	최고	0.029293
58	맛집	55	소개	31	식사	0.02917
59	향	54	섬진강	31	산책	0.029048
60	쌀	54	밤	31	관심	0.028925
61	사이	54	하우스	30	마당	0.028803
62	거리	54	장소	30	배추	0.02819
63	이장	53	말씀	30	고향	0.027699
64	소리	53	마당	30	소개	0.027454
65	마당	53	놀이	30	맛집	0.027332
66	최고	52	과일	30	공간	0.026964
67	선물	52	풍경	29	논	0.026842
68	식사	51	축제	29	감사	0.026596
69	하늘	50	주문	29	잎	0.026596
70	토란	50	옥과	29	보관	0.026474
71	두름	50	쌀	29	홍보	0.026229
72	김장	50	바닥	29	옥과	0.026106
73	친환경	49	맛집	29	임대	0.026106
74	기억	49	구입	29	기준	0.025984
75	계곡	49	이웃	28	소리	0.025861
76	가격	49	여유	28	입구	0.025371
77	회관	48	석곡	28	할머니	0.025371
78	정보	48	모양	28	기억	0.025126
79	알	48	돌	28	정책	0.025126
80	청년	47	노력	28	선물	0.024881
81	종류	47	환경	27	전통	0.024881

- 1) '셀'에 녹색 표시: 농촌 경관 구성 요소 관련 단어
- 2) '글자'에 녹색 표시: 시각적 요소를 갖춘 경관 관련 단어

〈표 3〉은 토픽 모델링<sup>7)</sup>의 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 수집한 일기 460건을 토픽 모델링을 통해 주요 주제별로 분류한 결과, 절반 이상(56.3%)이 '시각적 요소가 있는 일상 경관'과 관련한 글로 나타났다. 귀농·귀촌인이 '산책길 꽃', '텃밭 수확', '카페 공간', '맛집 식당', '섬진강 자전거길', '축제 행사' 등 시각

7 '토픽 모델링(LDA Topic Modeling)'은 쉽게 말해, 문서에서 유사성을 가진 단어들을 묶어 토픽으로 추출하는 방법이다. 대규모 문서를 주요 주제별로 요약, 분류할 때 유용하다(오정심 2022: 56).

표 3 토픽 모델링 결과

주제	단어1	단어2	단어3	단어4	단어5	문서 비율
뒷밭 수확	수확	옥수수	감	아저씨	뒷밭	12.0%
맛집 식당	맛	맛집	옥과	식당	점심	11.5%
산책길 꽃	꽃	여름	봄	엄마	산책	9.1%
축제 행사	축제	행사	기차마을	코스모스	석곡	8.3%
도림사 계곡	계곡	도서관	구경	들	도림사	7.8%
식물 모종	배추	사과	김치	모종	김장	7.8%
카페 공간	카페	커피	친구	공간	모임	7.2%
섬진강 자전거길	산	섬진강	자전거	다리	하늘	6.5%
마을 행사	행사	회장	회관	이장	교체	5.9%
농작물	멜론	감자	논	벼	쌀	5.7%
농가·농장	농장	농가	블루베리	사과	소	5.2%
뒷밭 농법	고추	뒷밭	할머니	풀	농법	4.8%
이웃집	고향	친구	감사	이웃	상추	3.3%
비닐하우스	하우스	농기계	버섯	딸기	가공	2.6%
농지	농지	울금	신청	잡초	벌레	2.4%

적 요소가 있는 일상 경관을 일기에 중요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귀농·귀촌인을 유치하고 농촌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각적 요소를 갖춘 일상 경관을 조성하는 일은 중요하다. 충청북도 증평군 ‘죽리마을’ 사례를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죽리마을은 64가구가 사는 작은 시골 마을이다. 최근에 급격한 인구 감소로 빈집과 유희 시설이 증가하는 등 주거 환경이 나빠졌다. 주민들은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의 새뜰사업<sup>8</sup>에 공모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 사업을 통해 방치된 빈집과 유희시설을 철거하고 그곳에 스페인 구엘 공원을 모티브로 한 예쁜 공원을 조성했다. 쓸려간 녹지공간에 화단과 꽃길이 만들었다. 모든 집에 벽화를 그려서 담벼락 미술관을 만들었다. 빈집은 개축해 귀농·귀촌인의 임시 거주처로 만들었다. 이는 주거 환경 개선을 넘어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사업을 추진한 지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 마을 인구가 20% 가까이 증가했다(정혁훈 2023.12.17; 오윤주 2024.05.15).

## 2. 감성적 측면

### 1) 감성 어휘 비율 분석

지금까지 명사형 형태소 분석 결과를 통해 귀농·귀촌인이 중요하게 인식한 일상 경관을 살펴봤다면, 이제부터 ‘형용사형 형태소’ 분석 결과를 통해 일상 경관에 관한 정서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감성 어휘 비율’을 분석하여 텍스트 전반에 나타난 감성 경향을 알아봤다. 감성 어휘 비율 분석은 감성 어휘 사전이나 인공 지능 기계학습을 통해 텍스트의 단어를 긍정·중립·부정으로 분류하고, 총비율로 감성 경향을 파악하는 방법이다(오정심 2024: 262). 데이터 분석 결과, 감성 어휘 비율이 긍정 68.9%, 부정 27.5%, 중립 3.7%가 나타났다. 즉 해당 귀농·귀촌인은 긍정 어휘를 70% 가까이 사용하여 농촌 마을의 일상 경험이나 생각과 느낌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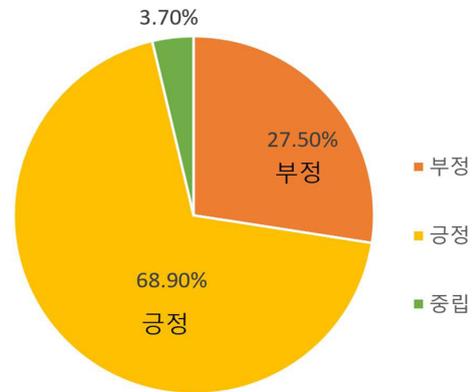


그림 1 감성 어휘 비율 분석 결과.

그런데 위 분석 결과에서 보듯이 감성 어휘 비율 분석으로는 사람들이 어떤 대상에 어떤 기분을 느꼈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시맨틱 네트워크 분석 방법’으로 형성한 단어 네트워크 목록에서 명사와 형용사 관계로 연결된 단어들을 추출하여 감성 내용을 살펴봤다.

8 농어촌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한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이다.



계속해서 <그림 3>에서 '텃밭', '카페'에 관한 정서를 살펴봤다. '텃밭'에 '작다', '가을·겨울' '수확', '이웃집(아저씨, 할머니, 옆집)', '아침·점심·저녁,' '식사', '맛있다', '좋다' 등이 연결돼 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작은 텃밭에서 수확하는 경험, 이웃집과 함께하는 텃밭 활동, 수확한 작물로 요리하고 식사하는 모습을 일기에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림 3>의 '카페'에 '예쁘다', '넓다', '공간', '좋다', '있다', '친구', '놀이', '재미있다', '구경', '기회' 등이 연결돼 있다. 이를 통해 카페의 분위기와 넓은 공간, 카페 주변 아름다운 꽃들, 재미있는 구경, 친구와 함께 하는 놀이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겼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곡성군의 일상 경관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전체 단어 네트워크 목록에서 주요 형용사와 연결된 명사를 검토했다. <표 4>는 전체 목록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을 추려서 정리한 것이다.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형용사를 한국어 형용사 분류 체계에 맞춰서 분류했다.<sup>10</sup>

객관형용사 '많다'와 연결된 명사를 살펴보면 곡성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관 대상을 파악할 수 있다. <표 4>에서 보듯이 '많다'와 연결된 명사에 텃밭, 논, 논

두렁, 벼, 감나무, 멜론, 사과, 토란 등 농지, 농업과 관련한 명사가 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곡성군에서는 텃밭, 논, 논두렁과 같은 농지와 사과나무, 감나무, 멜론, 토란의 재배지를 흔히 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030 곡성 경관 계획」에 따르면 곡성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경관은 농경지, 농가, 녹지, 임야로 이뤄진 산악지방의 농촌 모습이다. 그리고 사과, 감, 배, 토란, 멜론, 딸기가 많이 재배되고 있어서 과수 재배지를 쉽게 볼 수 있다.

<표 4>에서 눈에 띄는 점은 '많다'와 '좋다'에 연결된 명사에 '관음사', '도림사', '동약산', '압록유원지', '캠핑장', '장미축제' 등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표 4 단어 네트워크 목록 주요 내용

		단어 네트워크 목록		경관 구분		
		형용사	명사			
긍정	객관형용사	많다	텃밭, 논, 논두렁, 벼, 감나무, 고추, 딸기, 사인머스켓, 멜론, 사과, 토란	생산/농지		
			과수원, 농기계, 농장, 지게차, 천막, 비닐하우스	생산/농업		
			농가, 가옥, 가정집, 마당, 빈집	생활/주거		
			관음사, 도림사, 화엄사, 캠핑장, 물놀이장, 압록유원지, 출렁다리, 산책로, 기차마을, 장미축제, 카페	생활/여가		
			개구리, 계곡, 꽃, 벚꽃, 봄꽃, 코스모스, 장미, 매화나무, 산수유나무, 분꽃나무, 장미공원, 동약산, 산골짜기, 두루미, 백로, 섬진강, 보성강, 제철섬, 치유의숲	자연환경		
주관형용사	좋다	텃밭, 논	생산/농지			
		농장, 벼농사	생산/농업			
		전원주택	생활/주거			
		꽃밭, 도림사, 압록유원지, 장미축제	생활/여가			
		지리산, 침실습지, 강변, 들판, 명산, 밤하늘, 보성강, 섬진강, 벚꽃, 제철섬	자연환경			
부정	객관형용사	없다	-	생산/농지		
			-	생산/농업		
			가게, 가로등, 건물, 공장장, 교통, 차량, 정류장, 마트, 은행, 어린이집, 전원주택	생활/주거		
			미술관, 식당(맛집), 카페, 캠핑장	생활/여가		
			-	자연환경		
			주관형용사	아쉽다	-	생산/농지
					-	생산/농업
농가, 마당, 버스터미널, 도서관, 마트	생활/주거					
기차마을, 압록유원지, 장미축제, 행사	생활/여가					
-	자연환경					



그림 4 전라남도 곡성군 대곡리 마을 전경(자료: 저자 촬영)

10 형용사는 크게 '객관형용사'와 '주관형용사'로 구분한다. '객관형용사'는 어떤 사물이나 장소의 존재 여부와 속성 등을 나타낼 때 쓰인다. 그래서 객관형용사는 지역별 경관의 물리적 특성을 비교할 때 활용할 수 있다. 객관형용사에는 '많다, 적다, 있다, 없다, 쾌적하다 등'이 있다. '주관형용사'는 화자의 생각이나 감각기관을 통한 느낌 따위를 나타낼 때 쓰인다. 그래서 주관형용사는 경관 이미지나 경관 선호도를 조사하는 일에 활용할 수 있다. 주관형용사에는 '아름답다, 예쁘다, 좋다, 아쉽다' 등이 있다(유현경 2000: 238; 오정심 2023: 172).

곡성군에는 가족과 함께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장소와 자연환경이 많으며, 사람들은 이러한 활동에 긍정적인 정서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곳들은 곡성군에서 '경관 거점'으로 선정해 관리하는 곳이다.

곡성군의 일상 경관에 관한 부정적 정서도 살펴봤다. 단어 네트워크 목록에서 '없다', '아쉽다'와 연결된 명사를 검토했다. <표 4>에서 보듯이 '없다'와 연결된 명사에 '가게', '마트', '은행', '어린이집', '전원주택', '건물', '가로등', '차량', '정류장' 등이 있다. 그리고 '아쉽다'와 연결된 명사에 '마트', '버스터미널', '도서관', '마당' 등이 있다. 주로 생활 편의와 공공 서비스와 관련한 부분에 부정적 정서가 나타났다.

일상 경관에서 공공 서비스와 생활 편의를 돕는 시설을 갖추는 일은 중요하다.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 히가시카와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히가시카와는 사진이 예쁘게 나오는 마을 경관으로 유명하지만, 살기 편한 곳으로도 유명하다. 인구가 8,500명밖에 안 되는 작은 시골 마을이지만 문화 시설은 어느 대도시만큼 잘 갖추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히가시카와의 문화 시설은 도쿄의 미나토구만큼 많다. 또한 육아 및 교육 시설도 잘 갖추고 있어서 인근 대도시인 아사히카와에서 교육을 위해 이주해 올 정도이다(정영호 2022.11.21).

### Ⅲ. 결론 및 제언

#### 1. 요약 및 논의

일상 경관은 주민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거주 환경이나 매일 보는 동네 모습을 관리하면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유럽을 비롯한 세계 나라들은 일상 경관을 복지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일본 히가시카와 마을은 한발 더 나아가 일상 경관을 인구 대책에 활용해 여러 나라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일상 경관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경관 개념을 풍경화처럼 아

름다운 경치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다. 경관 문제를 관광과 도시 개발 차원에서만 다루고 있고 일상 경관을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 우리나라도 더 늦기 전에 일상 경관에 관심을 두고 관련 정책과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구 소멸이 가속화된 농촌 마을에서 서둘러 관련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사람들이 농촌 마을로 이주하고 싶어도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면 이주는커녕 거주민도 떠나고 싶을 것이다. 일본 히가시카와 마을이나 충북 증평군 죽리마을처럼 일상 경관을 가꿔서 누구나 가고 싶고 살고 싶은 마을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논문에서는 세계적인 변화 흐름에 발맞춰 일상 경관의 중요성을 주목하고, 전라남도 곡성군을 중심으로 일상 경관을 귀농·귀촌인 관점에서 연구했다. 귀농·귀촌인이 인식한 일상 경관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이들이 작성한 일기 460건을 수집해 텍스트 마이닝의 주요 기법으로 분석했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귀농·귀촌인이 중요하게 인식한 일상 경관을 알아보기 위해, 데이터 정제 작업을 통해 추출한 '명사형 형태소'를 텍스트 마이닝의 '단어 빈도수', '동시 출현 빈도수', '연결 중심성', '토픽 모델링'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귀농·귀촌인이 중요하게 인식한 일상 경관으로 '산책길 꽃', '텃밭 수확', '동네 행사', '카페 공간, 꽃' 등이 나타났다. 모두 시각적 요소가 있는 일상 경관이다. 시각적 요소란 생김새나 모양, 패턴, 색깔 따위가 달라서 두드러지거나 시선을 사로잡는 부분이 있는 것을 말한다. 귀농·귀촌 일기를 분석했기 때문에 논, 밭, 비닐하우스처럼 농업 또는 농지 관련 내용이 중요 대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분석 결과는 이와 달랐다.

시각적 요소가 있는 일상 경관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그중에서도 본 논문의 분석을 통해 산책길 꽃, 텃밭과 같이 일상에서 자주 보는 자연환경과 동네 행사, 카페처럼 즐거움을 주는 장소가 귀농·귀촌인이 중요하게 인식한 일상 경관으로 나타난 점을 주

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많은 농촌 마을은 주거 경관을 개선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으기 위해 지붕 색상을 하나로 통일해 색칠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의 분석 결과가 시사하듯이 시각적 임팩트는 그러한 인위적인 조치로 생겨나지 않는다. 일상에서 자주 보는 자연 환경, 동네 볼거리, 즐거움을 주는 장소 등이 어우러질 때 생겨난다.

둘째, 일상 경관에 관한 귀농·귀촌인의 느낌과 감정을 알아보기 위해, 감성 분석을 시행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감성 분석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시맨틱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했다. 이 방법으로 단어 네트워크 목록을 추출하고,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와 공기 관계로 연결된 '명사'를 목록에서 검토하여 감성의 대상과 내용을 확인했다. 이러한 방법은 기존 연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차별화된 접근법이다.

감성 분석 결과, 해당 귀농·귀촌인은 '동네 산책길 꽃', '동네 행사', '텃밭 수확물로 만든 식사'에 즐거움이나 만족을 나타냈다. 사람들이 화려한 정원, 대규모 행사, 성공한 농사가 아닌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상에 작지만 확실한 행복, 이른바 '소확행'을 느끼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주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일상 경관의 조성은 거창하고 어려운 일이 아님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 곡성군 일상 경관에 관한 부정적 정서도 살펴봤다. 감성 분석 결과, 마트, 은행, 어린이집, 버스터미널, 도서관 등 공공 서비스와 생활 편의와 관련한 부분에 '없다', '아쉽다'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확인했다. 일상 경관에서 교육, 교통, 의료와 같은 공공 서비스와 생활 편의를 돕는 시설을 갖추는 일은 중요하다. 일상 생활을 원활하게 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하기 때문이다. 마을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이 크다면, 그곳에서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심미성과 함께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고려한 지속 가능한 일상 경관 개발이 중요하다.

넷째, 일상 경관 연구 방법으로써 일기와 텍스트

마이닝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했다. 앞서 선행연구를 검토하면서 귀농·귀촌인이 시각적 요소가 풍부한 일상 경관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분석 결과를 확인한 바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정성적 연구 방법을 통해 이러한 연구 결과를 도출했으며, 본 논문에서는 정량적 연구 방법인 일기와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하여 유사한 결과를 재확인했다. 이로써 일상 경관 연구 방법으로 일기와 텍스트 마이닝의 유용성을 확인한 것이다.

## 2. 정책적 제언

지금까지 살펴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일상 경관 계획과 농촌 지역 활성화 정책에 필요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관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 경관에 대한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경관을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넓은 개념이며 일상생활에서 흔히 보는 모든 것이 경관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있을 때 경관 정책과 제도를 복지 영역뿐만 아니라 인구 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곡성군처럼 인구 감소가 가파른 농촌 지역에서 일상 경관 관련 정책과 제도를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 현재 인구 감소 지역에서 빈집과 유희시설이 증가하여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빈집을 철거하겠다고 했지만, 이 방법만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인구 감소 지역의 마을 대부분은 고령화되어 빈집 문제는 시간문제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주거 환경 개선을 넘어 일상 경관을 조성하여 아름답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야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일본 히가시카와 마을이나 충북 증평군 죽리마을은 문제 해결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셋째, 현재 많은 농촌 마을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지붕 색상을 하나로 통일해 색칠하거나 담벼락에 벽화를 그리는 일을 유행처럼 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의 분석 결과가 시사하듯이 시각적 임

팩트는 이러한 인위적인 방법으로 생겨나지 않는다. 산책길 꽃, 아름드리나무, 마을 숲, 오래된 돌담처럼 주변 자연환경과 동네 볼거리와 분위기가 어우러질 때 생겨난다. 현재와 같은 인위적인 방법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일기와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하여 귀농·귀촌인이 중요하게 인식한 일상 경관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 방법은 선행연구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이 점을 본 논문의 연구 의의로 꼽을 수 있다. 특히 시맨틱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감성 분석은 기존 방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이며, 감성 분석을 다루는 여러 연구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앞으로 후속 연구에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일기를 쓰지 않는 귀농·귀촌인의 일상 경관 인식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논문의 연구방법론을 다른 지역 연구에 적용해 그 유효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을 통해 일상 경관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의 결과물(NRF-2022S1A5B5A16048933)이다.

## 참고문헌

- 곡성군청, 2017, 『2030 곡성 경관 계획』.
- 김건태·서주환, 2018, 「역사문화 탐방로 조성사업 경관 특성 분석」, 『휴양및경관연구』 12(3), pp.23~29.
- 김상범·손호기·김은자·이동관, 2012, 「경관 관련 제도 변화에 따른 농촌경관계획의 발전방안 연구」, 『농촌계획』 18(4), pp.35~44.
- 김상범·이상영, 2006, 「농촌경관계획을 위한 공간별 주요 경관요소에 관한 연구-농촌전통테마마을을 중심으로-」, 『농촌계획』 12(3), pp.13~18.
- 김수현·이영준·신진영·박기영, 2020, 「거시경제 분석을 위한 텍스트 마이닝」, 『韓國經濟의 分析』 26(1), pp.1~85.
- 김용균·김상범·안필균·조한솔, 2022, 「농촌 빈집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안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24(1), pp.19~25.
- 노시훈, 2020, 「문화경관유산의 보존을 통한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 구현」, 『도시연구』 18, pp.147~181.
- 다마무라 마사토시·고지라 도시야키, 민성원 역, 2020, 『히가시카와 스타일』, 소하.
- 박근현·배정한, 2013, 「담론과 자본으로서의 경관 - 도시 경관의 정치·경제적 해석을 위한 이론적 틀 -」, 『한국조경학회지』 41(6), pp.117~128.
- 반영운·백종인·김민아·윤진욱, 2008, 「전문가 델파이 설문조사를 통한 농촌 경관 유형 분류 및 평가 지표 개발」, 『농촌계획』 14(3), pp.53~61.
- 서준원, 2023, 『이야기맵핑을 통한 서울 북촌의 일상경관 읽기』,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준원·조경진, 2021, 「문화경관으로서의 DMZ 철원 민북마을 일상경관 읽기 - 주민 심층 인터뷰 및 근거이론을 활용하여 -」, 『한국경관학회지』 13(2), pp.1~13.
- 송원섭, 2015, 「경관지리학에서 경치지리학(景致地理學)으로: 영미권 문화역사지리학 경관연구 패러다임의 전환」, 『대한지리학회지』 50(3), pp.305~323.
- 양지윤·김지연, 2017, 「텍스트 마이닝을 통한 웨일즈 밀레니엄 센터 건축의 대중적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12(5), pp.193~201.
- 오정심, 2022, 『다시 문화콘텐츠란 무엇인가-빅데이터를 통해 꿰뚫어 보다』, 부끄끄→e퍼플.
- 오정심, 2023,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문화경관' 유형과 특성연구: 전라남도 신안군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재』 56(1), pp.162~180.
- 오정심, 2024a,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문화경관' 인식과 감성 분석 :전라남도 신안·진도·완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4(3), pp.255~264.
- 오정심, 2024b, 「'구레5일장' 사례로 본 전통시장 인식 및 감성의 변화: 블로그 텍스트 마이닝 적용」, 『문화정책논총』 38(1), pp.117~148.
- 유현경, 2000, 「국어 형용사의 유형에 대한 연구」, 『국어학』 36, pp.221~258.
- 이광운, 2010, 「유럽경관협약에 비추어 본 경관법의 현황과 쟁점」, 『법학연구』 30, pp.171~188.
- 이차희, 2017, 『도시근교 농촌의 일상경관에 대한 거주민의 주관적 인식과 경관정체성 연구 : 경기도 이천시 산수유마을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차희, 2020, 「도시근교 농촌경관에 대한 거주민별 주관적 인식 비교 - 귀농·귀촌인의 특성을 고려한 경관관리 방안모색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26(3), pp.13~24.
- 전영수·김혜숙·조인숙·김미숙·이은정, 2022, 「소멸 위기의 지방도시는 어떻게 명품도시가 되었나?」, 라의논.
- 주신하, 2008, 「농촌경관의 보전·형성·관리를 위한 정책제언 연구」, 『농촌계획』 14(4), pp.77~86.
- 주신하·임승빈, 2008, 「농촌경관계획수립 기준 정립 연구」, 『농촌계획』 14(4), pp.69~76.
- 황기원, 1989, 「景觀의 多義性에 관한 考察」, 『한국조경학회지』 17(1), pp.55~68.
- 황기원, 2011, 『경관의 해석 : 그 아름다움의 앞』,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北海道写真の町東川町, 2006, 『東川町景觀計畫』.

## 참고문헌

- Council of Europe, 2000, Convention européenne du paysage.
- Donald W. Meinig, 1979, The interpretation of ordinary landscap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Évelyne Vouligny et al., 2009, 'An assessment of ordinary landscapes by an expert and by its residents: Landscape values in areas of intensive agricultural use', Land Use Policy, 26, pp.890~900.
- 광정수, "1700만 베이비부머, 도시를 떠나 농촌을 살린다", 한겨레, 2024.07.13.
- 김용희, "젊은 사람 씨가 말랐다...전남·북, 시·군 80%가 '소멸위험'", 한겨레, 2023.10.27.
- 나요안, "곡성군, 행복한 흥부자 '신흥마을 주민 일기장' 발간", 머니투데이, 2022.12.09.
- 오윤주, "죽리마을에 가우디 '구엘공원'이 들어섰다", 한겨레, 2024.05.15.
- 정영호, "육아천국' 소문나자 이주자 줄었다...도시골마을 부활 비결", 한경, 2022.11.20.
- 정혁훈, "죽리마을의 기적", 매일경제, 2023.12.17.
- "곡성군청", 2024년 2월 1일 접속(<https://www.gokseong.go.kr/>).
- "그린대로", 2024년 2월 1일 접속(<https://www.greendaero.go.kr/>).

# Analysis of Urban-to-Rural Migrants' Perceptions of the 'Everyday Landscape' Using Diary-Based Text Mining

OH Jungshim    Research Professor, K-Culture Creative Content Research Institute, Sangmyung University  
ruaths0802@naver.com

##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in response to the global trend of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everyday landscapes”, focusing on the perspective of those who have returned to rural life. With a focus on the case of Gokseong-gun in Jeollanam-do, 460 diaries written by these individual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using text mining techniques such as “frequency analysis”, “topic modeling”, and “sentiment analysis”. The analysis of noun morphemes was interpreted from a cognitive aspect, while adjective morphemes were interpreted from an emotional aspect. In particular, this study applied semantic network analysi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existing sentiment analysis, and extracted a word network list and examined the content of nouns connected to adjectives that express emotions to identify the targets and contents of sentiments. This method represents a differentiated approach that is not commonly found in existing research. One of the intriguing findings is that the urban-to-rural migrants identified everyday landscapes such as “flowers on neighborhood walking paths”, “harvest of a garden”, “neighborhood events”, and “cozy cafe spaces” as important. These elements all contain visual and enjoyable aspects of everyday landscapes. Currently, many rural villages are attempting to add visual elements to their everyday landscapes by unifying roof colors or painting murals on walls. However, such artificial measures do not necessarily leave a lasting impression on people. A critical review of current policies and systems is necessary. This research is significant because it is the first to study everyday landscapes from the perspective of urban-to-rural migration using diaries and text mining. With a lack of domestic research on everyday landscapes, this study hopes to contribute to the activation of related research in Korea.

**Keywords** Everyday Landscape, Urban-to-Rural Migration, Diary, Text-Mining, Semantic Network Analysis

Received 2024. 6. 26. | Revised 2024. 7. 18. | Accepted 2024. 8. 7.

